전래동화 활용 공평성 향상 프로그램이 유아의 공평성 추론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Traditional Fairy Tales - Based Program on the Improvement of Preschoolers' Distributive Justice Reasoning

순천대학교 소비자 · 가족아동학과
조 교 수 공 인 숙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 수 유 안 진
천안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 교 수 한 미 현
울산대학교 아동 · 가정복지학과
조 교 수 김 영 주
이천 현대전자 어린이집
원 장 권 혜 진

Dept. of Consumer · Family & Child Studies, Sunchon Nat'l Univ.
Assistant Prof. : Kong, Insook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l Univ.
Prof. : Yoo, Anjin
Dept. of Child Welfare, Chonan Univ.
Associate Prof. : Han, Mihyun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Univ. of Ulsan
Assistant Prof. : Kim, Youngjoo
Hyundai Elec. Child Care Center at Ichon
Director : Kwon, Hyejin

〈목 차〉

Ⅰ. 서론
Ⅱ. 관련 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Ⅳ. 결과 및 해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본 연구는 1999년도 교육부 교과교육공동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traditional fairy tales based program on the improvement of preschoolers' level of distributive justice reasoning.

The program was developed on the six Korean fairy tales which deal with the sharing problem among the friends and the families. The subjects were seventy-six, 4- and 5-year-old children selected from two kindergartens in Seoul and Ichon. Solomon 4-group experimental design was used. Each children were assigned for 2 experimental groups and for 2 control groups. Before the intervention, the subjects in experimental group 1 and control group 1 were interviewed individually with story dilemmas for their distributive justice reasoning.

For eight-week period, the program based on six Korean traditional fairy tales were used as an intervention. After the intervention, all the subjects were interviewed individually with another story dilemmas. The data were analyzed in SPSS Win 10.0 program, by frequency, percentile, mean, standard deviation, paired t-test and independent t-test.

As a result, the children in experimental groups had higher level of distributive justice reasoning than those in control groups. That is, program based on the traditional fairy tales gave positive effect on preschoolers' distributive justice reasoning.

◆ key word: **전래동화, 공평성 추론**

Ⅰ. 서론

유아기는 인성 발달의 기초가 되는 시기로, 유아는 이 시기에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한다. 주로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영아나 걸음마기 아동에 비해 유아는 또래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세계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학습하게 된다(Wortham, 1998). 즉 유아는 또래 간에 장난감 공유, 차례 지키기, 보상 나누기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면서, 어떻게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인간은 분배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에 근거하여 분배를 하지만, 이 방법이 타인에게 수용되지 않을 때 불공평을 느끼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기본 논리가 공평성이라고 할 수 있다(김경희, 1991). 즉 개인 간의 권리를 조정하는 중요 근거가 되는 공평성은, 유아기 뿐 아니라 이후의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일상 생활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Enright, Franklin & Manheim, 1980), 현재와 같이 물질 중심과 개인주의 가치관이 우세한 상황에서는 더욱 필요한 특성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유아도 공평성 추론을 할 수 있다는 Damon (1980)의 연구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공평성 추론의 발달적 경향(공인숙, 1996; 김미해, 1992; 옥경희 · 김미해, 1998), 또래 간의 토론(공인숙, 1996; 김경희, 1991; 김미해 · 옥경희, 1999; 김정준, 1993)이나 어머니의 언어적 상호작용(공인숙, 1996; 공인숙, 1999)과의 관련성이 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공평성 추론이 유아기에 나타나며, 이후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유아의 공평성 추론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흔히 유아는 동화를 많이 접하는데, 그 중에서도 전래동화는 공평성을 주제로 다루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전래 동화에는 인간에게 보편적인 동질성이 있으며, 전통사회의 공동체적 삶을 반영하는 가치가 담겨 있어 유아가 공평성에 관한 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래 동화는 재미가 있으면서, 의식주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도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래 동화를 활용한 공평성 추론 수준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이 프로그램이 유아의 공평성 추론 향상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 가의 효과를, ' 전래동화 활용 공평성 향상 프로그램이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해 검증하고자 한다.

Ⅱ. 관련 연구 고찰

1. 공평성 추론

아동은 어릴 때부터 사회집단과 사회조직에 참여하며, 그 안에서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문화와 사회조직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사회적 지향성을 갖게 된다(Turiel, 1980). 이때 아동이 사회의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면서 빈번히 직면하게 되는 문제 중의 한가지가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문제이다. 즉 나누기, 교대하기, 도와주기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어떻게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아동의 사회도덕적 행동에서 매우 중요하다(김미해, 1992). 인간은 분배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에 근거하여 분배를 하지만, 이 방법이 타인에게 수용되지 않을 때 불공평을 느끼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적 기본 논리가 공평성이라고 할 수 있다(김경희, 1991).

공평성과 관련하여 Piaget, Kohlberg 등은 아동이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러야 공평성 개념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하여 Damon(1980)은 아동의 사고를 연구하기에 가장 적합한 맥락은 아동이 흔히 접하고, 친숙한 아동의 직접 환경이라고 보았다. 그는 아동에게 가설적 분배 상황을 제시하고, 아동에게 가장 올바른 분배 방법과 분배 결정의 정당화에 대해 질문하고, 아동과의 면담 내용을, 이면에 있는 조직화 원리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여 〈표 1〉과 같이 연령에 따른 발달 경향을 제시하였다. 그의 공평성 추론 수준의 발달은 우리나라 연구(공인숙, 1996; 김미해, 1992)에서도 유용성이 확인된 바 있다.

2. 전래동화 활용 공평성 향상 프로그램

전래동화가 유아의 공평성 추론 향상에 영향을 준다는 구체적인 연구는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전래동화의 공평성 추론 향상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래동화는 예로부터 전해 오는 민간 설화 중에서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표현이 다듬어지고 재구성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래동화는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이므로 그 민족의 고유한 전통과 사상의 뿌리를 가지므로 전통 사회의 중요 가치를 되살리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즉 아동에게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공동체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전래 동화의 의미는 크다고 보여진다. 또 전래동화는 아동에게 적합하도록 재구성되었기 때문에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아동의 가치관 형성이나 개념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표 1〉 아동의 공평성 추론 수준

소망 지향 수준 - 가장 원하는 사람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경우
외적 특성 지향 수준 - 외적 특성(키, 성별 등)에 근거하여 보상의 분배결정을 하는 경우
동등 지향 수준 - 모든 사람이 특성과 관계없이 같은 양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경우
장점 지향 수준 - 바람직한 특성 (장점, 기여)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경우
필요 지향 수준 - 특별한 필요를 가진 아동에게 보상을 더 많이 분배해야 한다고 믿는 경우
형평 지향 수준 - 모든 경쟁적인 주장과 특정한 상황 조건을 고려하면서, 분배해야 한다는 경우

출처: 공인숙 (1996) 에서.

보여진다. 따라서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을 증진시키는 도구로 전래동화를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은 또래 간의 토의(김미해 · 옥경희, 1999; 김정준, 1993)나 어머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이나 함께 책읽기 활동(공인숙, 1996, 1999)과 관련된다. 즉 어머니나 또래가 유아의 조작적 상호작용을 충분히 허용하며, 명료화 요구를 하며 지지적일 때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이 높았다. 또한 유아교육 기관에서 그림 동화책을 읽어주고 토의한 결과 유아의 친사회적 추론 수준(최윤정 · 이기숙, 1999)과 공유행동(박은미, 1993)이 증가되었으며, 친사회적 토의 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켰다는 연구(김영옥 · 윤경선, 1999; 신현옥, 1996)를 통해 볼 때 전래동화를 활용한 프로그램에 의해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이 향상될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실험 설계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의 S어린이집과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H어린이집의 유아반과 유치반 유아 7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설계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솔로몬 4집단 설계를 사용하였으며, 가능한 한 유아가 연령과 성별에서 유사하도록 통제 집단 1, 2와 실험 집단 1, 2를 구성하였다. 구성된 집단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즉 유아의 경우 조사일(2000년 6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64개월이었으며, 남아가 42명이었고, 여아가 34명으로 남아가 많았다. 그러나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유아 간의 연령 차이는 없었으며 (t=-.11, N. S), 성별 구성도 유사하였다.

〈표 2〉 실험 설계

	사전검사	처치	사후검사
실험집단 1	+	+	+
실험집단 2	-	+	+
통제집단 1	+	-	+
통제집단 2	-	-	+

+ 실시함 - 실시하지 않음

〈표 3〉 대상 유아의 평균 연령과 성별

집단구분	평균 연령(개월)	남	여	계
실험집단 1	64.4	10	10	20
실험집단 2	64.6	11	6	17
통제집단 1	65.4	9	11	20
통제집단 2	64.0	12	7	19
계	64.4	42	34	76

대상 유아의 형제 수는 자신을 제외하고 1명인 경우가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동인 경우가 14명이었고, 2명인 경우가 3명이었다.

대상 유아의 아버지의 평균 연령은 36세였다. 또한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9명으로 전체의 12.9%를 차지하였고, 대학 졸업이 50명으로 71.4%이며, 대학원 졸업도 11명으로 15.7%이었다. 대상 유아의 아버지의 직업은 전문직이 25명(34.7%)이었고, 사무직이 65.3%이었다. 즉 대상 유아의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직업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대상 유아의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4세로 아버지보다 2세 정도 적었다. 또한 교육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27명으로 전체의 38.6%를 차지하였고, 대학 졸업이 39명으로 55.7%이며, 대학원 졸업도 4명으로 5.7%이었다. 대상 유아의 어머니는 전체의 57.1%인 40명은 전업 주부였고, 취업모는 42.9%인 30명이었다. 취업모의 직업은 전문직이 13명(18.6%)이었고, 사무직이 17명(24.3%)이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부모의 일반적 특성에서, 이 연구의 대상 유아가 주로 중류층에서 표집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공평성 추론 수준 측정 도구

프로그램 실시 전의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사전 검사 도구로는 공인숙(1996)의 연구에서 사용한 '교실 꾸미기 이야기'를 사용하였다. 이야기에서 주인공들은 외적 특성 (키), 장점, 필요에서 한가지 특징 만을 나타내며, 기타 특징은 통제되었다. 즉 '교실 꾸미기 이야기'에서 경식(미경)이는 '키' 라는 외적 특성을 나타내며, 장점과 필요는 통제된다. 유사하게 훈(숙)이는 장점을, 철(영)이는 필요를 나타낸다. 석이(선희)는 모든 특징에서 중립적인 주인공이 된다.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다.

제목: 교실 꾸미기 이야기

여기 네 나이와 같은 4명의 아이들이 있단다. 두 명은 여자고 두명은 남자란다 (그림 카드를 보여주면서 한명씩 이름을 이야기해 준다). 이중 경식 (미경)이가 제일 키가 크단다. 또 영이(철이)네는 집에 별로 돈이 없단다. 어느날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교실 꾸미기를 도와 달라고 하셨대. 그래서 4명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중에서 훈(숙)이가 4가지 그림을 그렸어. 선희(석이)와 경식(미경)이도 3가지씩 그림을 그렸어. 그리고 네가 보는 바와 같이 경식(미경)이가 이중에서 제일 키가 큰 남자(여자)아이야. 집에 돈이 별로 없는 영이(철이)는 2가지를 그렸어. 선생님은 교실 꾸미기를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연필을 10자루 주셨어. 그리고 아이들에게 잘 생각해서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하셨어. 자, 여기에 연필이 10자루 있어. 너는 아이들이 연필을 어떻게 나누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측정 도구는 성별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남녀 주인공의 특성이 반전된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후검사 도구는 사전검사 도구와 유사한 상황을 다루는 '시장 놀이 이야기'를 사용하였다. 두 경우 보조 자료로 그림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언어적 능력이 떨어지는 유아의 내적 잠재력을 충분히 파악하기 위하여, 유아의 대답에 따라 탐색 질문을 사용하였다.

3. 전래동화 활용 공평성 추론 향상 프로그램

선행연구(공인숙, 1996)를 참고로 하여, 분배의 기준이 없는 1단계는 제외하고, 공평성 추론의 기준으로 외적기준, 동등, 기여, 필요, 형평 등의 5단계를 나타내는 전래동화를 선정하였다. 그를 위해 5인의 아동학 전공자가 3차례에 걸친 분석 및 선정 작업을 하였다. 우선 1차적으로 기존 전래동화를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한 후,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그런 다음 주제와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각 주제별로 5개의 동화를 추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안면타당도 검증을 거쳐 소주제별로 1개의 동화를 선정한 결과, 1단계인 외적특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로 '두꺼비 등이 우툴두툴한 이유'가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동등이 기준이 된 전래동화로 '떡 먹기 내기'가, 기여가 기준이 된 동화로 '원숭이 엉덩이가 빨간 이유'가, 필요가 기준인 경우로 '우애 깊은 맏며느리', 형평이 기준이 된 동화로 '슬기로운 재판'이 사용되었다.

각 주제별로 선정된 동화의 내용을 토대로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활동 프로그램은 이야기 나누기, 미술활동, 과학활동, 음률활동, 게임, 역할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은 우선 전래동화를 들려준 후,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통해 소주제를 도입한다. 그리고 나서 이와 관련된 미술활동 및 과학활동 등의 전개활동을 연결하여 실행한 후, 동화의 내용을 역할극으로 재구성하고 재판놀이를 해봄으로써 상황에 대한 체험 및 판단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 다음 경험과 느낌을 발표하고 이야기 나누기로 활동을 마무리하였다.[1] 〈표 4〉는 공평성 판단의 근거로 동등을 사용한 '떡먹기 내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예이다.

4. 실험 절차

우선 통제집단 1과 실험집단 1에게 사전 검사(2000년 6월)를 실시한 후, 2000년 6월 29일부터 2000년 8월 30일까지 8주에 걸쳐 실험 집단 1, 2에게 공평

1)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은 '99년도 교과교육공동연구 결과보고서를 참고할 것.

〈표 4〉 전래동화 활용 공평성 향상 프로그램의 예시

목 표	동등하게 나누는 것이 공평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함
도입활동	동화 들려주기, 이야기 나누기
미술활동	• 데칼코마니 기법을 이용한 미술활동(준비물 : 도화지, 물감) -〉 나비 • 꽃 만들어 친구와 주고받기 (준비물 : 색종이, 가위, 풀, 사인펜) 1. 색종이를 접어 꽃을 만든다. 사인펜을 이용하여 더 예쁘게 장식한다. 2. 각자 만든 꽃을 가지고 짝을 지어 모여 앉는다. 3. 친구와 서로 꽃을 주고 받으며, 고맙다는 인사를 나눈다. 4. 꽃을 선물할 때와 받을 때의 기분이 어떠한 지 이야기를 나눈다.
게 임	• 똑같이 나누기(준비물 : 동글납작한 빵, 빵칼) 1. 4명을 한 조로 하여 여러 조로 구성한다. 2. 빵 3개(다른 걸로도 대치 가능)를 각 조에 나누어 주고, 조원들 모두 똑같이 나누도록 한다. 3. 똑같이 나누는 시간이 빠를수록 게임에서 이기게 된다. 4. 똑같이 나눈 조들은 빵을 먹도록 하고, 동등하게 나누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말해보도록 한다. 5. 간식 시간에 다른 친구가 더 많이 먹으려 해서 기분 나빴던 적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눈다.
기 타	• 과학활동 (준비물 : 양팔저울, 적목이나 바둑알 등의 같은 모양과 같은 무게의 물건 여러개) 1. 양팔저울의 원리를 설명한다. 2. 물건의 개수를 다르게 또는 같게 하면서 동등의 의미를 설명한다. • 음률활동 --〉 수박파티 1. 수박은 잘라서 여럿이서 먹는 과일임. 2. (가정 또는 어린이집에서) 함께 똑같이 나누어 즐겁게 먹었던 경험을 상기시켜 이야기 하도록 함. 3. 율동과 함께 노래를 부름 • 역할극놀이 • 재판놀이
마무리활동	경험 및 느낌 발표, 이야기 나누기

성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주로 토요일은 제외하고 주 5회에 걸쳐, 어린이집 일과 시간 전체에서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이 실시 완료된 후, 사후 검사는 2000년 10월 10일부터 약 1주일 간에 걸쳐 4집단 모두에게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에 공평성 추론 향상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동안, 통제 집단의 경우는 기존의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각 반의 담임 교사가 프로그램 진행과 검사를 담당하였다.

공평성 추론 수준 측정은 검사도구인 '교실꾸미기 이야기'와 '시장 놀이 이야기'를 그림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분배 결정과 의견의 정당화를 듣기 위한 준 임상적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때 유아의 응답에 따라 탐색 질문을 사용하였다. 유아는 비교적 쉽게 이해하였고, 평균 5분 정도 걸렸다.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은 2인의 평정자가 유아가 분배 결정을 정당화한 내용을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예를 들자면 "왜 00이에게 나누어 주었니?" 라

는 질문에, 유아가 " 00이가 여자라서, 나도 여자니까 나는 여자아이와 나눌거예요."라고 대답한다면, 이때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은 외적 특성 지향 수준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즉 결정에 대한 정당화로 성별 등의 외적 조건을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은 소망 지향 단계를 1점으로 하여 1점씩 차이를 두어서 형평 지향 단계는 6 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신뢰도는 평정자간 신뢰도를 사용하였고 .85로 양호하였다.

5. 자료 분석

자료는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백분율,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빈도분포, 최저값, 최고값을 구하였다. 다음으로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 간의 차이는 대응표본 t검증을 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는 독립표본 t검증을 하였다.

Ⅳ. 결과 및 해석

유아에게 8주 간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실험집단 1과 통제집단 1의 사전- 사후검사 간의 대응표본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았다. 즉 실험집단 1의 경우는 사전검사 시 평균 3.10점에서 사후검사 시 4.40점으로 1수준 이상 증가하였으며, 통제집단1의 경우는 사전검사에서 3.37점이었는데, 사후검사에서 3.47점으로 0.1점의 증가만을 나타냈다. 사전-사후 검사 간에 차이가 실험집단 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통제집단 1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실험집단 1의 유아는 전래동화를 활용한 공평성 증진 프로그램을 받고 나서, 공평성 추론 수준이 증가하였으나, 통제집단의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은 변화가 없었다.

또한 실험집단 1의 사전 검사 값과 통제집단 1의 사전 검사 값을 독립표본 t 검증한 결과, 〈표 6〉에서 보듯이 프로그램 실시 전의 실험집단 1의 평균값은 3.10이었고, 통제집단 1의 평균값은 3.50으로, 두 집단의 공평성 추론 수준은 프로그램 실시 전에는 유사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실시 후의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의 공평성 추론 수준이 통제집단의 공평성 추론 수준보다 〈표 7〉에서 보듯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즉 실험집단의 공평성 추론 수준이 3.97로 통제집단의 3.08보다 높았다. 이는 그림 동화책을 이용해 유아의 친사회적 추론 수준을 높혔다는 연구(최윤정 · 이기숙, 1999)나 친사회적 토의 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킨다는 결과(김영옥 · 윤경선, 1999)와 일치하는 것으로, 전래동화를 활용한 본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을 높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전래동화가 유아의 공평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개발된 공평성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한 실험 연구의 대상은 유아 76명이며, 솔로몬 4집단 설계에 의해 실험집단1, 2에 37명, 통제집단1, 2에 39명이 참여하였다. 이중 실험 집단은 8주간에 걸쳐 5가지 전래 동화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누

〈표 5〉 집단 내 유아의 프로그램 실시 전, 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의 차이

집단	N	사전검사		사후검사		paired-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실험집단 1	20	3.10	2.02	4.40	1.23	-3.38**
통제집단 1	19	3.37	1.61	3.47	1.54	-2.53

** $p < .01$

〈표 6〉 프로그램 실시 전 집단 간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의 차이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실험집단 1	20	3.10	3.10	-.68
통제집단 1	20	3.50	1.67	

〈표 7〉 프로그램 실시 후 집단 간 유아의 공평성 추론 수준의 차이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
실험집단 1, 2	37	3.97	1.52	2.57**
통제집단 1, 2	39	3.08	1.50	

** p <.01

기, 미술활동, 과학활동, 음률활동, 게임, 역할극 등으로 구성된 전래동화 활용 공평성 추론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사전, 사후 검사 시, 공평성 추론 수준은 공평성 추론 수준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준 임상적 면접에 의해 측정되었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평성 추론 향상 프로그램은 유아의 공평성 추론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유아의 공평성 추론 발달을 위해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측정된 것이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장기적 효과를 탐구하고, 그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공인숙(1996). 유아 및 아동의 공평성에 관한 언어적 상호작용과 공평성 추론.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1999). 어머니의 함께 책보기와 유아의 공평성 추론의 관계. 가정관리학회지 17(1), 191-203.

김경희(1991). 아동의 공정분배에 관한 연구 : 또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미해(1992). 아동의 공평성 개념 및 우정 개념 및 분배행동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_____ · 옥경희(1999). 가설적 갈등 상황에 대한 집단 토의가 유아의 분배정의 추론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1), 29-44.

김영옥 · 윤경선(1999). 친사회적 토의 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307-324.

김정준(1993). 가설적 갈등 상황의 토의가 유아의 도덕적 추론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배정의 추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은미(1993). 동화 내용에 대한 토의가 유아의 공유행동에 미치는 효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현옥(1996). 자신과 타인 이해 활동이 유아의 자아개념, 조망 수용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옥경희 · 김미해(1998). 사회적 관계에 따른 아동의 분배정의 추론의 발달. 아동학회지 19(1), 101-115.

최윤정 · 이기숙(1999). 그림동화책 읽어주기와 토의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및 추론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3), 275-291.

Damon, W.(1980). Patterns of change in children's social reasoning: A two-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51*, 1010-1017.

Enright, R. D., Franklin, C. C. & Manheim, L. A. (1980). Children's distributive justice reasoning: A standardized and objective scale. *Developmental Psycholoy 16(3)*, 193-202.

Turiel, E.(1980). The development of social-conventional and moral concepts. In M. Windmiller, N. Lambert, & E. Turiel (eds.), *Moral development and socialization*. Boston: Allyn and Bacon. 69-106.

Wortham, S. C.(1998). *Early childhood curriculum: developmental bases for learning and teaching*. OH: Merrill.